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촉구 결의안-참조25)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안광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5453
----------	------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일

발 의 자: 안광림, 추선미, 서희경, 이영경,
김종환, 김보석, 김장권, 김보미,
정용한, 구재평 (이상 10명)

□ 제안이유

- 2023년 7월 6일, 국가철도공단에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설계 시공 일괄입찰을 공고함.
- 그동안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 관계기관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 반영을 수차례 요청한 끝에, 올해 2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이 반영되었음.
- 도촌동과 야탑3동은 6만여 명이 거주하고, 2천여 개의 업체와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일평균 12만명이 통행하며 특히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에 따라 교통혼잡이 심각함.
-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극심하게 발생하는 교통체증을 고스란히 지역주민들이 겪고 있음.
- 도촌지구 주변 개발여건 변화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했을 때,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하며, 도촌·야탑역(가칭)을 신설할 수 있는 여건 마련이 절실히 필요함.

☐ 주요내용

- 교통 소외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하여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에 대비한 기반시설 (대단면 터널 또는 부분선, 작업용 수직구 등) 반영을 강력히 촉구함.

☐ 결의문(안) : 별도 붙임.

☐ 기타사항

- 이송기관 :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 붙임 :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1부. 끝.

『수서 ~ 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반영 촉구 결의안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은 『수서~광주 복선전철』에 【도촌·야탑역(가칭) 기반시설 실시계획 반영】을 전 시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

성남시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수차례 국토교통부에 역 신설과 함께 역사 신설에 소요되는 비용도 부담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으며, 장래 수요 등을 감안해 수서~광주 복선전철 노선이 도촌사거리를 경유하도록 국토교통부 및 국가철도공단에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다.

2023년 7월 6일,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설계시공 일괄방식으로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공사’ 입찰 공고하였고

성남시의 수차례 요구 끝에, 올해 2월 수서~광주 복선전철 기본설계에 도촌사거리 경유노선이 반영되었다.

이에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대단면 터널 또는 부분선, 작업용 수직구 등의 기반시설을 수서~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도촌동과 야탑3동은 6만여 명이 거주하고 2천여 개의 업체와 1만여명의 근로자들이 통행하는 지역으로,

한국교통연구원 KTDB 통행량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 도촌사거리 주변

지역은 기준 일평균 12만명이 통행하고 있으며, 특히 광주·이천 방면 통행량 증가에 따른 교통혼잡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에 출퇴근 시간대를 중심으로 극심하게 발생하는 교통체증으로 주민 불편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

뿐만아니라 도촌지구 주변 개발 여건 변화와 성남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했을 때, 미래 사회적·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가칭 도촌·야탑역 신설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교통 소외지역에 편의를 제공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국토부 및 국가철도공단에서 진행하는 “수서~광주 복선전철 건설사업” 실시계획에 장래 도촌·야탑역(가칭) 신설에 대비한 기반시설 반영을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야탑3동, 도촌동 주민 6만여명, 2천여개 업체, 근로자 1만여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국가철도공단은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도촌·야탑역 기반시설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수서 ~ 광주 복선전철 실시계획에 도촌·야탑역 기반시설을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4. 4. .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